

우병우 국감증인 채택…출석 여부 주목

靑 국감 내달 21일 실시…불출석 사유시 추후 재협의키로
정진석 “불출석 안돼”…친박계 불쾌감 당 내홍 가능성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을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하지만, 우 수석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당 원내지도부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여권 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김영한 당시 수석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끝에 사의를 표

명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본인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출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짓자”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안

건을 왜 보류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원내수석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 “더 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체 기관 증인은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간사 간 협의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은 당연히 (증인 명단에) 들어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불러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우 수석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과거에도 민정수석은 기관 증인으로 ‘자동 채택’됐지만 관행적으로 불출석이 용인됐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추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로서는 우 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 지켜보자”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출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우 수석의 직접 해명·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른바 ‘청와대 흔들기’라고 주장하는 여권이 맞설 경우 이 사안은 정기국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날 운영위에서 같은 당 소속의 정 원내대표와 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이 문제가 여당 내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정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친박계가 불쾌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가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정운찬, 미래 함께 만들자”

동반성장 토론회서 만나…鄭 “기대말라” 일단 선긋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7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동반성장과 공정성장이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토론회’에서다. ‘공정성장’은 안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동반성장’은 정 전 총리가 표방하고 있는 이론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초청된 정 전 총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2016’에 다녀온 것과 관련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공부 많이 하고 오셨나 보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측사에서 “무엇보다 정치를 바꿔야 하는데,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를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정권이어야 한다”면서 “지도와 나침반도 있어야 하는데, 정 전 총리 같은 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러브콜’에 정 전 총리는 일단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당과 함께할 것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강연에 갔다고 해서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중도 대선후보 손학규·김무성 거론

중도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은 7일 제3지대 중도세력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일단 꼽았다.

이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손 전 대표에 대해 “우리는 중도신당으로 보느냐 진보 양극단을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 발전이 가능한 정책을 구사하는 노선과 이념이 있으므로 손학규 전 의원이 과연 그런 이념에 동조할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

령제를 선호하고 대선 전 개헌이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는 시작하자마자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새누리당을 나올 수 있는 혁명적 용기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친박들이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제3지대 애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시의회 4조원대 市금고 조례개정안 가결

금리·중소기업 대출실적 등 배점 조정

4조원대 광주시 재정을 관리할 시금고 지정 조례가 일부 변경됐다.

광주시의회는 7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결정한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자위는 앞서 대순총당급 적립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지정 수,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은행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어 연말 새 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가 심사한 ‘광주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건위에서 의결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의회 다음 회기인 252회 임시회는 다음달 6~18일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대 국회 첫 단체촬영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의원들이 개원 후 첫 단체 촬영을 했다. 7일 오전 본회의를 마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서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호남출신 ‘새호회’ 호남 세력화

이정현 등 주도 정기모임…서진정책 본격화

당원 당비 인하·새만금 특위 구성 등 논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이종구 의원 등 새누리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새호회’를 만들어 우의를 돈독하게 함은 물론 호남의 발전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새호회는 새누리당 내에 호남에 연고가 있거나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모임으로,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 호남의 세력화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호남-새누리 연대론’을 들고 나오며 군벌을 지피고 있는 ‘서진(西進)정책’을 실현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호회를 주도적으로 만든 이종구 의원은 7일 “어제(6일) 새호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정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며 “개원에 맞춰 6월쯤 한차례 오찬을

가졌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부산 출생인 이 의원은 대부분의 세월을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강남구갑이 지역구지만 부친인 이종재 전 의원의 고향이 보성이라, 당내에서 호남 인맥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 자신도 서슴없이 호남 출신임을 밝히며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새호회의 지난 6일 오찬은 정기 모임을 겸해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이 의원 외에 이 대표와 전북 전주율이 지역구인 정운찬 의원, 호남이 고향인 정양석(보성), 조훈현(목포), 신보라(광주) 의원

이 참석했다. 심재철(광주) 국회 부의장은 이날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언급한 ‘대선 호남표 20% 확보’가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책임당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현재 호남의 책임당원은 월 2000원의 당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1000원으로 하는 등 취약지역은 당비를 낮춰주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 지원을 위한 당내 ‘새만금특위’ 구성 등도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중으로 10~20명 규모의 새만금특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